



정부는 '26년 지역방송 예산을 전년대비 +22.4% 증액 반영하였습니다.

<보도 내용>

- 2025.12.5. MBC는 「국정과제 ‘지역 균형·발전’.. ‘지역방송’ 예산 어디로」 기사에서,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당초 45억원이었던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207억원까지 늘리는 예산안을 의결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150억원을 특별한 사유 없이 삭감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.

<정부 입장>

- 해당 사안은 국악방송·아리랑국제방송의 예산 지원기관(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)과 감독기관(문화체육관광부) 간 소관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 예산을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관조치한 것으로, 지역·중소방송 지원과 연계하여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.

- 또한, 관련 예산이 일반회계로 이관되었더라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지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인 점도 감안하였습니다.

*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누적 차입액: 1.8조원, '26년 이자부담 502억원

-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, 미디어의 지역성·다양성 강화를 위해 '26년 주요 지역언론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.

- 지역·중소방송 지원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5억원을 추가하여 전년대비 22.4% 증액('25년 45억 → '26년 55억, +10억) 반영하였으며, 지역신문 지원 예산 역시 전년대비 42.4% 증액('25년 83억 → '26년 118억, +35억) 반영하였습니다.

-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미디어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	책임자	과 장	정성원 (044-215-7270)
		담당자	사무관	최성민 (csm9385@korea.kr)
담당 부서	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정책과	책임자	과 장	강필구 (02-2110-1450)
		담당자	사무관	이용원 (ioioa87@korea.kr)
담당 부서	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	책임자	과 장	윤태욱 (044-203-3211)
		담당자	사무관	임효정 (makeus2me@korea.kr)

